

데스크칼럼

흥내 내기 수행법



이재형 국장

‘흥내’는 그리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주체성이 결여됐다거나 위선, 가식적, 이중적 태도를 지적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다. 이런 정서는 불교계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殺佛殺祖)”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그곳이 모두 진리다(隨處作主 立處皆眞)” 등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일 수 있다. 손가락을 세우는 자신을 흥내 내는 어린 동자의 손가락을 끊어 알깨었다는 구지선사 일화처럼 흥내는 남의 다리를 굽는 어리석은 일로 간주된다.

하지만 불경에는 흥내 내기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찬탄하는 사례들도 많다. ‘범구비유경’의 원숭이들이 그렇다. 부처님께서 아라한들에게 계반국 남쪽 산에 가서 탐과 절을 세우게 했다. 아라한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탐을 돌았다. 그런데 이 산에는 500마리의 원숭이가 살았다. 이들 원숭이는 아라한들이 탐을 세우고 공양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신기한 듯 구경하더니 그 일이 재밌게 보였는지 나중에는 흥내 내기 시작했다. 서로 장난 치며 진흙과 돌을 운반해 탐을 만들었고 그곳에 침착한 것보다 세웠다. 원숭이들은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예불을 드리며 놀았다.

그러던 어느 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500마리의 원숭이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 원숭이는 죽어 도리천에 태어났다. 탐을 만든 공덕 때문이다. ‘범구비유경’에는 “장난으로 흥내 내며 탐을 세웠어도 이런 복을 받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받든다면 그 공덕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불전엔 흥내 내기가 공덕

부처님 닮아가는 게 수행

진정성 따지는 건 무의미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무리들에서 떨어져 홀로 산속을 헤매던 원숭이 한 마리가 수행자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지냈다. 원숭이는 나무뿌리나 열매를 따다가 수행자들에게 올리고 자기는 남은 음식을 먹어가며 살았다. 수행자들은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부조한 채 선정에 들었다. 원숭이도 차츰차츰 수행자들을 흥내 내며 걸가부좌를 했다. 훗날 이들 수행자들은 깨쳤으며 육신을 버리고 모두 열반에 들었지만 원숭이는 수행을 지속했다. 뿐만 아니라 고행승들을 교화해 큰 깨달음도 이루게 했다고 기록돼 있다.

불전에는 원숭이 500마리가 서로 팔을 연결해 연못에 비친 달을 건져려 했으나 그들을 지방하던 나뭇가지가 부러져 모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비산산공작영(蓮華山山空捉影, 원숭이가 팔을 이어 헛되이 물속의 달을 건지려하네)’는 형상에 집착하는 원숭이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글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가섭불 당시 이들 원숭이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흥내 내려 했고, 사람들과 다른 색다른 공양을 올리기 위해 고민하던 중 연못에 비친 둥근 달을 건져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 했다고 한다. 물에 빠져 죽은 500마리 원숭이는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500나한이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얘기들은 흥내 내고 따라하는 행위가 큰 공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수행은 어쩌면 흥내 내기일 수 있다. 내가 비록 중생이지만 부처님처럼 말하고, 내가 비록 중생이지만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내가 비록 중생이지만 부처님처럼 생각하려는 노력이 수행이다. 끊임없이 부처님을 흥내 내고 따라하다 보면 부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1프로 부처님을 흥내 내면 1프로 부처님, 10프로 부처님을 흥내 내면 10프로 부처님, 그렇게 차츰차츰 닮아가 100프로까지 부처님을 흥내 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불이 아닐까.

최근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긴 동안거 수행에 들어갔다. 그 수행을 두고 진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설령 흥내 내는 것이라도 불보살과 역대조사스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공덕이며 칭송받을 일이다. 옮겨올 우리도 부처님의 ‘따라쟁이’가 돼볼 일이다.

mitra@beopbo.com

세심청심

어릴 때는 언제나 계절이 우리들의 감성보다 더디게 흘렀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봄은 쉬이 오지 않았고, 여름, 가을 또한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유독 봄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다. 3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온 시를 외우고 또 외우며 봄을 기다렸던 생각이 새록새록 하다.

임김으로 호호/ 우리창을 흐려 놓고/ 썼다가는 지우고/ 또 써 보는 글/ 봄 꽃 나비/ 봄 꽃 나비/ 봄아 봄아 오나라/ 어서 오나라/ 봄이 되면 나는 나는 새로 사학년(봄 꽃나비)

교실창소로 우리창을 뒤으며 이 글들을 써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글을 쓴 게 아니라 봄을 시의 내용만큼 기다리고 기다렸다. 고교시절엔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는 가을이 기다려졌다. 이렇게 하여없이 기다려야만 내 곁에 와 주었던 계절들이 어느 순간 기다릴 틈도 없이 지나가 버리기 시작했다. 정말 돌아보면 몇 번의 계절이 지나가 버린 때도 있었다.

이 가을도 그렇게 놓쳐버리고 생각해 보니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제 경전반 수업시간 때의 일이다. 출가 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시절 기억을 되돌아보았다. ‘무슨

기자칼럼

태고종 내용이 장기화되면서 종단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호명 스님이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모이는 한편, 여전히 편백은 스님의 비장식적 행보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편백은 스님의 표리부동한 언행에 대한 종도들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앙총회, 호법원, 초심원 등 중법기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뒤로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양주 청련사가 종단 허가 없이 재단법인으로 재산을 등기했다며 ‘황령(형의없음 결정)’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이 종단 절차를 무시한 채 종단 공철인 울산 보덕사 매각을 시도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 때문이다.

애초 현재의 종단사태는 26대 총무원장이던 편백은 스님이 중앙총회의 불신임결의에 반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그는 총무원 청사를 점거한 채 자신에 대한 원로회의의 불신임 인준, 호법원의 ‘총무

맹목적인 삶

출가 전 삶의 목적 되돌아보니
도무지 목적이 분명한 게 없어
시간 흐름 잊지 않는 삶이 먼저

일을 앞에 두고 이것을 하고 나서 뭘 할 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성취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은? 도무지 3번을 넘어 그 목적이 분명한 게 없었다.

학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정말 두 번 세 번 문자 답을 잊지 못했다. 한 수강생은 세 번째 질문에 “그러다 죽는 것이지요”라고 당당히 대답하고 답을 멈추었다. 스스로도 더 이상 어떤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그야말로 목적이 맹(盲)한가를 한 번쯤 되돌아보자는 뜻이다. 그토록 아름다운 계절도 있을 정도로 바빠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리 살고 있구나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불교를 달리 공문(空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허무주의와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는 허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 그 어떤 인간보다, 인류의 그 어떤 업적보다 정확히 갈파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맹목적이고 놀랍게도 자신의 기존 지식과 의식에 집착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본질적 인식 구조를 일깨워 주려고 팔만사천법문을 설파하신 것이다.

자신이 가진 일생이라는 시간들이 획획 지나쳐가는데도 아무런 인식도 못하고 일상에 묻혀 계절의 흐름도 모른 채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학인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혼자 생각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맹목적인가를 깨우쳤구나 하고 혼자 생각하고 위로자 “자괴심을 갖지 마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일어서면서 누군가가 말했다. “스님, 그냥 이렇게 살래요. 너무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 하니 너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요.” 갑자기 모두 웃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맹목적인지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식은 더 어렵고 귀찮아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살더라도 제발 계절의 흐름까지 잊은 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 년 전 원효 스님도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지 아니한가?” 하시며 공부하기를 독려했었다. 어느 날 문득 죽을 앞에 맞닿았을 때 우리들이 그때 후회하기엔 너무 늦지 않을까?

성원 스님

약천사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암 학장
sw0808@yahoo.com



종도 공감 못 얻는 편백은 스님의 모순



송지희 기자

원장 당선 무효, 초심원의 명분 판결 등 일체의 종단 절차에 대해 ‘무효’를 주장해 왔다. 때문에 편백은 스님이 초심원의 ‘명분’ 징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단 안팎에서는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편백은 스님이 종단 공철이자 비구니 강원인 울산 보덕사에 대한 ‘재산처분승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덕사 토지와 건물 일체에 대한 매각을 시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올 8월경 작성된 해당 서류는 편백은 스님이 무단점거한 총무원 청사에 호명 스님측 집행부가 진압하면서 발견됐다.

호명 스님은 즉각 울산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10월8일 법원은 보덕사에 대해 “매매, 증여를 비롯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재 보덕사 등기부등본에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재산 관리·처분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처분 행위 금지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런 가운데 편백은 스님은 “27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 중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구종위의회를 통해 15대 총회를 구성하고 선거법을 개정해 새 총무원장을 뽑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종도들의 반응 역시 대체로 부정적이다. 현 총무원장을 향해 중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모순투성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종단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종식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으며 종도들의 신뢰와 공감 역시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편백은 스님이 진정으로 종단 정상화를 바라한다면 이를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의 불설과 언설



체로금풍(體露金風)

비움의 계절이 주는 지혜

찬바람이인다. 가을이 끝을 향해 달린다. 산천을 물들였던 찬란한 계절은 곧 낙엽으로 떨어져 흩바닥을 뒤덮게 될 것이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성어가 있다. 체로금풍(體露金風)이다. 풀이하면 온몸으로 가을바람을 맞게 된다는 의미인데, 속뜻은 본래 자신, 즉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깨우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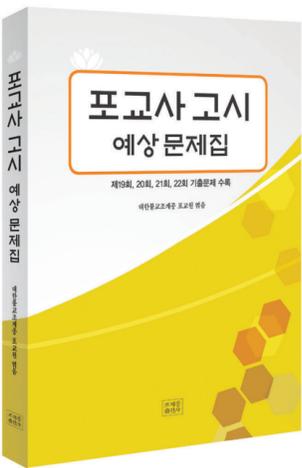
백암록 27칙에 나오는 화두로, 한 스님이 묻는다.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찌합니까?” 운문 스님이 답한다. “체로금풍이다.”

나무를 가렸던 무성했던 잎과 꽃들이 가을바람에 모두 떨어지고 나면 나무의 몸통이 드러난다. 몸통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겨울 삭풍에 몸속의 진액까지 모두 게워내고 양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 우리는 그 모습에서 영기적 계절의 흐름을, 화려한 꽃과 잎에 가려졌던 나목(裸木)의 진면을 보게 된다. 우리 또한 몸을 둘러싼 온갖 장신구와 마음을 차장했던 사상과 이념과 아집을 모두 버려야 비로소 가려져 있던 본래 자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체로금풍이 주는 교훈은 비움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감이다. 나무는 해마다 무성했던 잎과 꽃을 모두 비워 초심으로 돌아가기에, 다음 해 새로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1월11일 전국의 선원에서 스님들이 일제히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위에 상월선원에서는 9명 스님의 극한 전막결사가 시작됐다. 나무가 추운 겨울 삭풍에 마지막 남은 진액까지도 게워내듯 3개월의 가행정진을 통해 마지막 남은 번뇌 한 방울까지도 토해내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비록 동안거에 들지는 못하지만 감춥터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쫄쫄 씌며 아집과 편견을 털어버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꾸밈이 떨어진 자리에서 생각이 비워지면 곧 새로운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체로금풍의 계절, 나무가 하나하나 잎사귀를 떨구듯이 아우성치는 생각들이 하나둘 떨어져 맑게 비워진, 텅 빈 지혜를 꿈꿔본다.

김형규 대표 kimh@beop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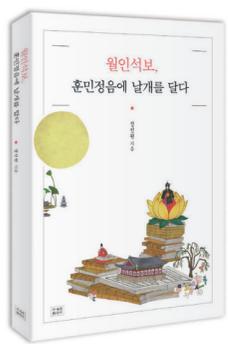
5천여 선배 포교사들이 필독했던 바로 그 책!



**포교사고시
예상문제집**

포교사고시 예비 응시생들의
학습 길잡이이자,
최종 점점을 위한 참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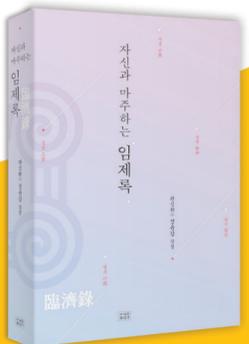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엮음
사륙배판 | 408쪽 | 값17,000원



월인석보, 혼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불교의 도도한 가르침을 담은 월인석보,
그 웅숭깊은 세계를 만나

정진원 지음 | 신국판 | 전면컬러 | 288쪽 | 값 17,000원



자신과 마주하는 임제록

선禪어록의 왕, 《임제록臨濟錄》을 통해
‘나’를 바라보다

관심(觀心) 성윤갑 강설 | 436쪽 | 값 20,000원